



하상주보

2020년 11월 15일 (가해)

연중 제33주일 (세계 가난한 이의 날)

제1825호

“가난한 이에게 네 손길을 뻗어라” (집회 7,32)

가난한 이에게 뻗은 손길은,
그리스도 제자로 살아가는 오직 그 기쁨으로
소리 없이 겸손하게 도움을 주는 이들의 미소로
언제나 더욱 풍요로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세계 가난한 이의 날 담화문> 중



가난한 이에게
네 손길을 뻗어라

2020

[제1독서] 잠언 31,10-13,19-20,30-31

[화답송] 시편 128(127),1-2,3,4-5
(◎ 1ㄱ 참조)

◎ 행복하여라, 주님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



- 행복하여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분의 길을 걷는 모든 사람! 네 손으로 벌여 네가 먹으리니,
너는 행복하여라, 너는 복을 받으리라. ◎
- 너의 집 안방에 있는 아내는, 풍성한 포도나무 같고,
너의 밥상에 둘러앉은 아들들은 올리브 나무 햇순 같구나. ◎
- 보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렇듯 복을 받으리라.
주님은 시온에서 너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너는 한평생 모든 날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리라. ◎

[제2독서] 1테살 5,1-6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 안에 머물러라.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

[복음] 마태 25,14-30
(또는 마태 25,14-15,19-21)

네가 작은 일에 성실하였으니, 와서 네 주인과 함께 기쁨을 나누어라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14 “하늘 나라는 어떤 사람이 여행을 떠나면서

종들을 불러 재산을 맡기는 것과 같다.

15 그는 각자의 능력에 따라 한 사람에게는 다섯 탈렌트,

다른 사람에게는 두 탈렌트,

또 다른 사람에게는 한 탈렌트를 주고 여행을 떠났다.

16 다섯 탈렌트를 받은 이는 곧 가서 그 돈을 활용하여 다섯 탈렌트를 더 벌었다.

17 두 탈렌트를 받은 이도 그렇게 하여 두 탈렌트를 더 벌었다.

18 그러나 한 탈렌트를 받은 이는 물러가서 땅을 파고 주인의 그 돈을 숨겼다.

19 오랜 뒤에 종들의 주인이 와서 그들과 셈을 하게 되었다.

20 다섯 탈렌트를 받은 이가 나아가서 다섯 탈렌트를 더 바치며,

‘주인님, 저에게 다섯 탈렌트를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다섯 탈렌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21 그러자 주인이 그에게 일렀다. ‘잘하였다, 착하고 성실한 종이!

네가 작은 일에 성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너에게 많은 일을 맡기겠다.

와서 네 주인과 함께 기쁨을 나누어라.’

22 두 탈렌트를 받은 이도 나아가서, ‘주인님, 저에게 두 탈렌트를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두 탈렌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23 그러자 주인이 그에게 일렀다. ‘잘하였다, 착하고 성실한 종이!

네가 작은 일에 성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너에게 많은 일을 맡기겠다.

와서 네 주인과 함께 기쁨을 나누어라.’

24 그런데 한 탈렌트를 받은 이는 나아가서 이렇게 말하였다.

‘주인님, 저는 주인님께서 모진 분이시어서, 심지 않은 데에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에서 모으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25 그래서 두려운 나머지 물러가서 주인님의 탈렌트를 땅에 숨겨 두었습니다.

보십시오, 주인님의 것을 도로 받으십시오.’

26 그러자 주인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 내가 심지 않은 데에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에서 모으는 줄로 알고 있었다는 말이냐?

27 그렇다면 내 돈을 대금업자들에게 맡겼어야지.

그리하였으면 내가 돌아왔을 때에 내 돈에 이자를 붙여 돌려받았을 것이다.

28 저자에게서 그 한 탈렌트를 빼앗아 열 탈렌트를 가진 이에게 주어라.

29 누구든지 가진 자는 더 받아 넉넉해지고,

가진 것이 없는 자는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30 그리고 저 쓸모없는 종은 바깥 어둠 속으로 내던져 버려라.

거기에서 그는 울며 이를 갈 것이다.”

복음 묵상

하늘 나라는, 주인이 종들에게 능력에 따라 재산을 나누어 준 것과 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같은 능력을 가졌으면 하는 것이 우리의 바람이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누가 더 받고 누가 덜 받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복음의 비유는 누구의 능력이 더 큰지가 아니라 각자 받은 탈렌트를 어떻게 사용하였는지를 강조합니다. 따라서 탈렌트 양의 차이는 문제가 아닙니다.

주인이 맡긴 재산만큼 벌어들인 종들은 칭찬을 받습니다. “착하고 성실한 종이! …… 와서 네 주인과 함께 기쁨을 나누어라.”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탈렌트, 곧 재능은 감추어 두거나 숨겨 두는 것이 아니라 잘 활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재능을 받은 이들이 그 재능을 세상에서 활용함으로써 하늘 나라는 풍성해집니다. 작은 일에 성실한 종에게는 이제 더 큰 일이 맡겨집니다.

‘성실하다.’라는 표현은 믿음과도 연결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느님께서 성실하신 분이시라는 것에 바탕을 두고, 우리가 하느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하느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성실하게 따른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성실함은 하느님과 신앙인의 관계를 나타내는 특징이기도 합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에 성실하다는 것은 하느님께 받은 재능을 통하여 하느님의 현존이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재능을 자신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은 탈렌트를 땅에 숨겨 두는 것과 같습니다. 많고 적음을 떠나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곰곰이 생각해야 합니다. (허규 베네딕토 신부)

프란치스코 교황, 제4차 세계 가난한 이의 날 담화 발표 “가장 가난한 이 안에 주님 모습 있어”



프란치스코 교황은 11월 15일 제4차 세계 가난한 이의 날을 맞아 ‘가난한 이에게 네 손길을 뻗어라’(집회 7,32)는 주제로 담화를 발표했다. 교황은 집회서에 나오는 구절들을 인용하며 가난하고 고통받는 이들과 이루는 연대를 강조했다. 교황은 “하느님께 드리는 기도와 가난하고 고통받는 이들과 이루는 연대는 떨어질 수 없는 것”이라며 “가장 가난하고 멸시 받는 이들을 비롯해 모든 사람 안에 하느님 모습이 새겨져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고 말했다. 기도와 봉사는 떨어질 수 없다는 의미다. 특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전 세계가 고통과 죽음, 절망과 혼돈에 빠진 오늘날 상황에서 도움의 손길을 준 의사, 간호사, 행정가, 약사, 사제, 자원봉사자들을 소개하며 “이러한 도움의 손길들을 모두 모으면 긴 선행록을 만들 수 있을 정도”라면서 “이 모든 손길은 감염과 두려움에 맞서 도움과 위안을 줬다”고 밝혔다.

교황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기는 많은 확신을 위태롭게 만들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오랫동안 당연하게 여겨 왔던 것들을 불현듯 다시 바라보게 됐다”고 했다. 이어 “서로 돕고 존중할 수 있는 새로운 형제애가 얼마나 필요한지 깨닫게 됐다”며 지금이야말로 타인과 세상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다시 깨달을 좋은 때라고 말했다. <가톨릭신문>

이번 감염증의 세계적 확산이 예기치 않게 들이닥쳐 미처 대비하지 못했던 우리는 심한 당혹감과 무력감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이를 향한 손길은 결코 멈춘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 손길은, 가난한 이들을 더욱 잘 알아보고 그들이 필요로 할 때 그들을 도우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보여 줍니다. 자비의 도구들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날마다 갈고닦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를 향하여 먼저 내밀어 주는 손길을 우리가 얼마나 필요로 하는지 인식하는 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가난한 이에게 네 손길을 뻗어라.” 따라서 이 말씀은, 자신이 공동의 숙명에 동참하고 있음을 느끼는 인간으로서 저마다 지닌 책임감으로 부르는 초대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약한 이들의 짐을 짊어지라는 권고입니다. 이는 바오로 성인의 다음과 같은 말씀과 일치합니다.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사실 모든 율법은 한 계명으로 요약됩니다. 곧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여라.’ 하신 계명입니다. …… 서로 남의 짐을 저 주십시오”(갈라 5,13-14; 6,2). 바오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가 받은 자유는 다른 이들, 특히 가장 약한 이들에게 봉사해야 하는 우리의 책무라고 가르칩니다. 이는 선택 사항이 아니라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진정성을 드러내는 표징입니다.

<세계 가난한 이의 날 담화문> 중에서, 전문 보기 : <https://cbck.or.kr/Notice/20190585>

성소주간 이동한 신학생 본당 방문



2020년 성소주년을 맞아 지난 11월 8일(일) 본당 출신 이동한 다니엘 신학생(Mount St. Mary's Seminary, MD)이 본당을 방문했다. 그는 오전 8시, 10시 미사 중에 ‘사제로의 하느님의 부르심과 신학교 생활’에 대해 전했다. “하느님의 이름으로 온전히 남을 위해 살 수 있는 삶을 살고 싶어 사제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다”며 교구 성소국장 신부님과 본당 신부님들 그리고 주위 분들의 기도와 도움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 무엇보다도 신학교 생활 중 부족하고 게으른 본인을 이끌어 주시는 하느님의 손길과 자비를 느끼며 감사하는 마음과 행복한 마음으로 신학교 생활을 하고 있음을 전하고, “우리 모두는 하느님의 부르심에 따라 살아갈 때 제일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누군가 아직도 하느님의 부르심을 찾고 있다면 하느님과의 소통과 기도로 ‘나의 부르심’을 찾아 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또한, 김태진 베네딕토 주임 신부는 본당의 다니엘과 폴 신학생이 “항구히 주님의 뜻을 따르며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축복해 주면서 본당에서 “더 많은 성소자가 배출되기를” 기도했다.

1 주일 미사 안내

- 주일 미사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웹사이트의 **“미사 참여 신청”**을 클릭해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주일 오전 10시 미사 초과 신청으로 **주일 오전 8시 미사를 재개** 합니다. 보다 안전한 미사를 위해서 적절하게 분산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착순 100명)**

2 평일 미사 안내

- 화요일 : 오후 7시 30분 • 수요일 : 오전 11시
- 금요일 : 오후 7시 30분 (예방 수칙은 주일미사와 동일합니다.)

3 한마음 기도 시간에 대하여

- 매일 밤 9시 한마음 기도는 ‘한반도의 평화와 우리 본당의 일치와 화합을 위해’ **주모경** 1번씩 바쳐 주시고, 목주기도와 나머지 기타 기도들은 원하는 시간에 자유로이 바쳐 주시기 바랍니다.

4 본당 웹사이트 적극 활용

- 코로나19 로 인해 자주 변경되는 상황을 본당 웹사이트에 업데이트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컴퓨터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모바일**로도 보기 쉽게 바꾸었습니다. **온라인 봉헌**이 신설되었고, 텍스트 메시지나 이메일로 본당 소식을 접할 수 있게 되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5 유아세례 안내

- **유아세례는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와 3시**에 있으니 사무실로 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6 2021년도 매일미사 책 주문

- 금액 : 1년분 \$65
- 문의 : 성물부 회장 **조로사** (703) 608-7191

7 문화부 봉사자 모집

- 문화부 활동과 가톨릭 미디어 제작에 관심있는 봉사자를 찾습니다. **사진 및 동영상 촬영, 영상편집, 그래픽디자인, 음향장비** 등에 관심있는 분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 연락처: 정주용 토마스 (703-509-2287, juyong_j@hotmail.com)

연중 제33주일 **‘세계 가난한 이의 날’**



프란치스코 교황은 2016년 11월 ‘자비의 회년’을 폐막하며 연중 제33주일을 ‘세계 가난한 이의 날’로 지내도록 선포하였다. 이날 교회는, 가난한 이들을 위한 우선적 선택의 모범을 보여 주신 예수님을 본받아, 모든 공동체와 그리스도인이 가난한 이들을 향한 자비와 연대, 형제애를 실천하도록 일깨우고 촉구한다.

성경 필사 5년 계획 (2017-2021)

- 2021년까지 진행되는 성경(구약과 신약) 필사에 신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연중 제33주 주간: 에제 35-39, 유다 1**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2020년 11월 8일(연중 제32주일)

주일헌금	\$2,210.19
교무금	\$5,770.00
교무금(크레딧카드)	\$1,300.00
감사헌금	\$1,150.00
2차 헌금	\$1,016.00
합계	\$11,446.19

♥ 주일헌금 및 2차 헌금의 세금공제를 원하시는 분은 세금공제 확인용 봉헌예물 봉투를 사용해 주십시오.

 AM 1310 **라디오 가톨릭 프로그램**

11월 18일(수) 오전 6:15-6:45 | 11월 21일(토) 오전 8:00-8:30

- 워싱턴 가톨릭 소식
- 윤원진 신부님의 강의 ‘시나이’

※ www.dc1310.com에서 ▶ **생방송** 듣기 를 선택하시면 스마트폰을 통해 생방송으로 청취를 하실 수 있습니다

버지니아 성정 바로로 성당 제공 **KACM TV 하이라이트**

11월 19일(목) 오후 5:00-6:00
11월 20일(금) 저녁 8:00-9:00
11월 22일(일) 오전 6:00-7:00

Cox Ch.30, 830
Fios Ch. 30

1. 위대한 성인들 - **아는 것을 실천한 교회 학자들**

2. 걸어서 만나는 신앙의 숨결 -

김대건 신부와 최양업 신부의 동선이 만나는 **한덕골 성지**

RE/MAX Gateway 부동산 www.Rachael Kim.com 레이첼 김(아네스) 703-652-5790 Cell. 703-774-8945	정재민 치과 센터빌스퀘어(Centreville Square) 정재민(미카엘) DMD, PC 703-825-1191	허진 변호사 attorneyhuh24.com 민사, 형사, 소송재판 전문 허진(세바스찬) 703-288-1515	문스 자동차 정비 VA 인스펙션 오일체인지, 각종 자동차정비 이병일 (다니엘) 703-266-1983	재노 오 부동산 Keller Williams Realty 재노 오 (로사) 703-772-7275
마이키즈 소아/청소년과 mykidspediatricians.com 정소연(크리스티나) 703-865-5437	영스 헬스케어 간병사, 간호사, 물리치료 서비스 김경해 (아네스) 703-647-0292	김돈현 가정의학적전문의 Fairfax Family Medicine Center Michael D. Kim, MD 703-591-4100	베스트 사인 간판 / 네온 / 박스 / 현수막 전광판 / 배너 / 메뉴판 703-887-1515	뉴잉톤 오토바디 자동차 바디, 정비, 페인트 김명곤(바오로) 703-455-0008 Cell. 571-243-5037
안 아픈 세상(양방/한방) 교통사고보험 인정 병원 척추신경과, 치료맞사지과 한방나라 이현찬 한의원 703-658-5100	시티 종합 보험 자동차, 주택, 비즈니스, 생명 김수현 (엘리사벳) 703-352-1073	Lee's Heating & Air 히팅 & 에어컨 이일우 (베드로) 703-675-8009	골프 레슨 성인레슨 및 원포인트 가능 초보, 학생, 여성 골프 환영 레지나 703-832-7155	소아전문 치과 Pediatric Dental Care Dr. John Han (한장협) Fairfax 703-383-3434 Springfield 703-992-7100
시원 냉난방 에어컨, 히팅, 플러밍 김연철 (윌리엄) 703-362-7770	민기호 내과 John Min M.D. 703-462-8711	척추사랑 교통사고/척추신경/손, 발 통증 병원 Dr. 이형훈 (마르코) 센터빌, 챌린리 703-429-4622 락빌 MD 301-231-7588	생명보험 · 메디케어 은퇴연금 · 사업체 보험 홍마태오 703-969-8956 박소피아 703-969-8954	커머셜 김준 부동산 상업용, 투자용 건물 매매 리태일 / 오피스 리스 202-384-7301
한미 소독 가정집, 상점 (STORE) 하홍엽 (요한) 703-451-3322	와니 건축 In & Out 핸드맨 Service 부엌, 화장실, 텍 권태완 (빈센트) 571-331-6811	민 자동차 정비 703-869-9691	원 통증 · 재활 Woodbridge 지역 메디케어, 각종 보험 571-659-2540	뉴욕라이프 생명보험, 은퇴연금 자녀 저축보험 박수미(미카엘라) 571-263-1033
정수정 부동산 Keller Williams Realty 정수정 (안나) 703-855-8575	영스 히팅 에어컨, 히팅 703-728-3160	석성현(요한) 신경내과 MD 두통, 치매, 파킨슨, Stroke, 손떨림 Vienna, Tysons Corner 근처 703-828-3373	제니스김 부동산 Keller Williams Realty 제니스김 (베로니카) 571-723-6172	Euromotor Cars Mercedes-Benz 유스티노 한 703-855-8710
Kim's Auto Service 자동차 정비 703-425-4600	영스 노인 복지센터 주정부 보조 및 저렴한 개인 비용 703-988-2044	박정훈(요한) 치과 Family Dentistry 마운트 버넌 병원 근처 703-679-8959	CORE 물리치료 통증, 재활치료 전문 (메디케어) 김우기(안드레아), DPT 703-865-6455	ASSA 종합보험 메디케어 상품, 카이저 보험 현재 플랜에 관한 무료 상담 문의: 최 클라라 703-649-2110
워싱턴 노인 복지센터 데이케어, 홈케어 문의: 데레사 데이케어 703-963-1234 홈케어 703-850-1100	CHA GROUP 앤디차 공인회계사 세금보고 & 회계업무 www.GroupCha.com 703-678-8848	경희 바울 한의원 비만, 중풍, 통증, 내과 전문 변형식(바오로) 703-907-9299	그레이스 홈 케어 노인/중증 환자/산모 케어/물리치료 전문 간호 석, 박사 운영중 대표 김 아네스, RN 703-865-7370	프렌즈 헬스케어/데이케어 간병 및 물리치료 데이케어 서비스 임 에스더 703-819-0360
윤 조셉 변호사 www.yoonfirm.com 교통법, 형법, 개인상해, 파산 재판전문 변호사 703-260-6060	재무설계 생명보험, 학자금, 은퇴연금, 롱텀케어 개개인에 맞는 플랜 설계 탁지은(안젤라) 202-431-0627	DK 건강 보험 1955년생 메디케어 무료상담 및 신청 정문기(윌리엄) 703-598-3316 정선화(도로테아) 703-862-5395	클로이 양 부동산 Giant Realty Inc. 다운사이징 / First time home buyer 양윤정(카타리나) 703-865-1026	GCOOP 케어셀라 천연 고기능성 화장품 맑고 투명한 물광피부 약속 김은희(글라리아) 703-732-3836

미사 안내

주일미사 생중계

매 주일 오전 10시 미사가 유튜브로 생중계됩니다. 생중계는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으며, 지난 주일 미사도 본당 웹사이트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www.stpaulchung.org

미사 시간 (MASS SCHEDULE)

※ 미사 참여 신청자 중 선착순 100명까지 미사 참여 가능

주일미사	· 08:00 AM	평일미사	화요일	07:30 PM
	· 10:00 AM		수요일	11:00 AM
	· 05:00 PM		금요일	07:30 PM



천주교 성정 바오로 성당

ST. PAUL CHUNG CATHOLIC CHURCH
 Catholic Diocese of Arlington, Virginia

4712 Rippling Pond Dr., Fairfax, VA 22033
 Tel (703)968-3010 | Fax (703)968-3013
 Home Page : www.stpaulchung.org
 E-Mail : sthasang@gmail.com

PARISH STAFF 주임신부 김태진 (베네딕토) | 보좌신부 강두영 (암브로시오) | 사도회장 황원근 (알렉산더)